

기억방식을 통해 본 임진왜란의 서사 양상

Phases of the Discourse Through the Way of Remembe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음영철*, 박은미**

삼육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교양대학**

Yeong-Cheol Eum(sangoma@syu.ac.kr)*, Eun-Mi Park(hujun1930@daum.net)**

요약

본 연구는 임진왜란을 통해 본 기억의 서사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세기까지 임진왜란과 이순신 중심의 기억 서사의 주류를 이룬 것은 이순신의 영웅담론이었다. 임진왜란 당대에 씌여진 『징비록』과 『난중일기』는 임진왜란에 대한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묘사가 서사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이순신이 중심이 되어 서술하였기에 백성과 격군의 겪은 임진왜란의 참상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창작된 김훈의 『칼의 노래』는 기존의 영웅 담론에서 벗어나 인간 이순신의 내면을 독백의 형식으로 그려내었다. 임진왜란과 백성 중심의 서사는 전란에 참여한 해상외병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에 대한 다른 서사를 보여주었다. 김한민 감독의 <명량>은 임진왜란에 대한 기존의 기억 방식을 수정한 것으로, 수많은 전쟁 장면을 통해 임진왜란 승리의 주역이 백성이고 이순신은 부수적임을 보여주었다. 역사의 진실은 기록된 것만으로는 전부를 알 수 없다. 소설과 영화와 같은 문화 텍스트는 임진왜란의 기억방식을 영웅이 아닌 개인에 두었으며 백성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음을 보여주었다.

■ 중심어 : | 임진왜란 | 이순신 | 칼의 노래 | 명량해전 | 기억 | 망각 |

Abstract

In this paper, the aspects of recollection discourse during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re discussed. As a research method the dialectic of oblivion is us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like these: first, the hero discourse of Lee Soon-Sin was the center of the discourse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until the 20th century. In the two books *Jingbirok* and *A War Diary* written at that time, the subjective and objective description of the war was essential. However, it has a limit that it can't describe the real situation of the war that the people and the soldiers went through, as it focuses on Lee Soon-Sin's inner thoughts. Second, in the 21st century *The Song of Sword* written by Kim Hoon deals with the inner mind of Lee Soon-Sin in monologue unlike the usual hero discourse. Although as we can see in the records about the marine righteous army, people centered discourse description of the war shows a different way of discourse about the Imjin War. The movie, *Myeongryang* directed by Kim Han-Min tries to modify the way of remembering the war and presents the real heroes were the people and Lee Soon-Sin was a additional character in the war by showing a lot of battle scenes in the sea. The truth of history can't be found by only researching the recorded materials. As cultural texts dealing with the way of remembering the war, the novel shows a struggling individual not a hero and the movie focuses on that people's active participation led the victory of the war.

■ keyword : |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 Lee Soon-Sin | The Song of Sword | Myungryang Marital War | Remembering | Oblivion |

I. 들어가기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역사가와 시인을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탈근대로 접어들면서 역사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거를 호명하기에 역사란 기억의 투쟁이며, 기억의 정치학이라 할 것이다. 기억의 정치학에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기억의 주체이며, 무엇을 기억의 범주로 삼느냐 하는 것이다 [1].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스토리뱅크의 성격을 지니기도 한다. 오늘날 작가들은 ‘지금 여기’에 필요한 이야기를 역사라는 창고에서 찾아내어 소설, 영화, 연극, 뮤지컬 등으로 각색하며, 문자로 기록된 역사는 누구에 의해 기술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된다.

E.H 카는 “역사란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과정,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2]. 카는 “역사가와 사실은 평등한 관계, 주고받는 관계다. 역사가는 끊임없이 해석에 맞추어 사실을 만들어 내며 사실에 맞추어 해석을 만들어 낸다. 어느 쪽도 우위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하였다[2]. 그런가 하면 랑케는 확실한 사실을 바탕으로 역사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객관주의에 입각하여 과거를 ‘있었던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역사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사실의 선택 과정은 역사가의 주관이 관여된다는 점에서 있었던 그대로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기록물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말 자체도 시간의 흐름을 견뎌 내지 못하며 압축, 누락, 과장, 왜곡되어 전해지기 때문이다[3].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는 임진왜란은 어떤 전쟁인가. 임진왜란은 1592년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으로 3년간 휴전 상태로 있다가 1597년부터 다시 전쟁이 개시되어 1598년에 끝난 전쟁이다. 그 중에서도 명량해전은 1597년 선조 30년 9월에 시작된 전쟁으로 330척 왜군에 맞서 조선 수군이 12척의 배로 싸운 기적적인 전쟁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명량해전은 칠천량 해전 패전에 따른 전세를 역전시킨 전환점을 가져온 전쟁이다. 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이 이순신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켰다면[4], 영화 <명량>은 이순신

보다는 백성들이 항전한 모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인가.

임진왜란을 다룬 연구들은 시대에 따라 그 성과와 추이가 달라졌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로 쓰는 사람을 역사가라 할 때, 역사가에 따라 임진왜란은 달리 기록되어 왔던 것이다. 현대의 역사학자들 또한 자신의 사관에 비추어 임진왜란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고 있다. 예컨대 명량해전을 다룬 연구 성과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그 경향과 특징을 살펴보면, 1989~1990년대에는 주로 명량해전의 발발 배경 및 전략에 집중되었다. 2000년대에는 명량해전의 승리 요인에 주목하면서 철쇄 가설을 부정하였다. 2010년 이후의 연구적 특징은 연구 외연이 확대되고 보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명량해전을 연구하였다[5].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로는 의병활동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는 점이다[6]. 그러나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명량해전의 승리 요인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에 대한 평가도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시작하여 신화적인 단계를 거쳐 인간 이순신으로 시대에 따라 다르게 묘사되었다. 정두희는 조선왕조 시대부터 임진왜란의 실상은 항상 은폐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전쟁의 참상은 물론이고 왜적이 침입했을 때, 왕조와 지도층의 무능력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이순신은 충절의 상징으로 기억되었다[7].

역사학자의 평가와 달리 문화비평가는 이순신을 어떻게 평가하였을까. 역사소설, 드라마, 영화 등에서 나타난 이순신은 20세기 초 신채호의 「이순신전」을 시작으로 최근에 김훈의 『칼의 노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신채호는 구한말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이순신을 구국의 영웅으로 그려냈다. 이광수의 소설 「이순신」에는 이순신이 절대선으로 나오며 나머지 인물들은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악한으로 그려졌다[7]. 김훈의 『칼의 노래』는 정유재란 당시 이순신을 집중 조명된 것으로 소재만 역사이지 판타지에 가까운 작품으로 평가받았다[8]. 이성혁은 임진왜란을 다룬 김훈의 『칼의 노래』가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

려고 했다기보다는 역사를 재료로 자신의 세계관을 드러내었다고 보았다[9]. 정건희는 김훈의 역사소설이 기존의 역사소설 유형론에 포섭되지 않는다면 비역사성을 주요한 특징으로 내세웠다[10].

영화 <명량>을 두고 김기봉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거대담론으로 귀환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하였으나[11], 한영현은 영웅 이순신보다는 이름 없는 격군을 통해 새로운 서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12]. 요약하자면, 20세기 초까지 역사소설에 나타난 임진왜란 승리의 주체는 이순신으로, 작가들은 신인이나 불세출의 영웅으로 그를 그렸다. 그러나 21세기 초에 나타난 역사소설이나 영화에는 이순신에 대한 찬양이나 숭배보다는 인간 이순신의 내면을 그리거나 백성 즉 민중에 의한 승리의 기록을 부각시키면서 이순신에 대한 그간의 이미지를 수정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알박스의 집단 기억의 개념을 중심으로 정유재란 당시의 역사적인 사건인 명량해전이 역사에 기록되는 과정에서 기억되고 망각되는 서사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당대의 역사를 기록한 『난중일기』와 『정비록』,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와 김한민의 영화 <명량>으로 하였다. 이들 작품들은 부재하는 역사의 진실을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을 통해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작품을 분석한다는 것은, 임진왜란의 기억방식이 바뀌는 과정을 살핌으로써 역사의 주체가 시대에 따라 달리 서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것이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어떤 지식인이건 시대적 구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13]. 조선 중기의 역사적 사건인 임진왜란은 명량해전을 다룬 소설과 영화에서 알 수 있듯이 백성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하다. 이는 문자를 남기지 않은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속에서 다른 형태로 잔존하기 때문이다[14]. 따라서 연구자는 임진왜란 초기와 달리 정유재란 당시의 명량해

전 기억방식이 권력층의 이념에 따라 누락되거나 왜곡된 부분을 고찰하고 이를 다시 재조명해야 한다고 본다.

임진왜란의 서사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연구자는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기억은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구성하는 구성적 행위이기 때문에 ‘진정한 과거’에 대한 망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의미가 기호로 표현될 때 원천적인 의미는 망각되고 문맥에 따른 해석이 가해진다. 상호 텍스트성이나 역사 기술 역시 모두 이전의 기억을 위한 것이지만 그 기억의 구성과 이로부터 파생되는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원천적 의미의 망각이 필연적으로 요청됨을 알 수 있다[14]. 망각은 기억과 대립되는, 기억의 다른 정반대 극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과거의 내용은 그 자체로 기억을 통해 재현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대해 만들어진 표상들을 통해서, 즉 기억 행위에 의해서 구성되며, 이렇게 구성된 과거는 바로 현재의 상태를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현재적인 관점에서 재구성되는 과거의 특정한 기억의 형상들은 불필요한 것이 삭제되거나 전체 서사들에 맞게 변형, 굴절, 왜곡되어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것이다[14].

자신의 역사적 대중이나 민족의 역사적 모든 역사는 과거에 대한 사료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시작과 끝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전체의 서사 형태에 함묵적으로 맞춰진 구성된 역사로 볼 수 있다. 이런 역사를 구성하는 과정은 구성 요소로 망각을 필연적으로 요청한다[14]. 새로운 역사기술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부여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자의에 내맡겨져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는 사회적 것이므로 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타자도 함께 포함해야 한다. 임진왜란을 다룬 일련의 문화 텍스트는 바로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망각에서 구해내기 위한 저장으로서의 텍스트로 이해되며, 그럴 경우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이 요청된다.

니체의 주장대로 과거의 기억과 역사에 의존한 채 사는 것이 현재의 삶에 방해가 된다면 역사는 망각되어야 한다. 이때 망각의 의미는 역사를 완전히 무의 상태로 돌린다거나 완전한 잊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가

현재적인 삶을 위해 비판적으로 새롭게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니체에게 역사적 진리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성적인 성격을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연구자는 임진왜란에 대한 집단기억을 연구하는 한 방법으로 알박스의 집단 기억 개념이 유효하다고 본다. 이런 집단 기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틀이 필요하고 이는 “사회적 틀을 통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적 관점에서 기억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과거는 원래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 관점에서 재구성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5].

III. 개인 경험을 통한 역사적 기억

임진왜란 초기 육군은 연전연패였으나 수군은 연전연승을 하였다. 조선 수군은 왜구와 싸우는 과정에서 실전 같은 훈련을 하였기에 해상전은 승리 가능성이 높았다. 이순신의 전란전술은 ‘승병선승이후구전(勝兵先勝而後求戰)’으로 왜군의 침입에 잘 대비하였다. 이순신은 잘 준비된 수군, 판옥선, 현자총통, 지형적 이점, 명나라 원군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2년 동안 남해안의 해로를 잘 차단하였다. 그러나 원군이 주도한 칠천량해전이 패배한 후 수군은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어 왜적과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순신은 이 당시에 선조로부터 해전을 포기하고 권율장군과 함께 지상전에 참전하라는 선조의 편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순신은 ‘미신불사상유십이(微臣不死尙有十二)’란 말을 남기고 명량해전에 참전하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기억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촉발시킨 모리스 알박스는 기억이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경험이지 않고 그 내용 및 구성 전달의 과정에서 지극히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억한다는 것은 회상이 사회적 준거점들의 집합적인 틀과 연결됨으로써 일정한 시 공간속에 제 위치를 잡아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15]. 선조 때의 신하 유성룡은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징비록』을 남겼다[16]. 이 책은 1598년부터 9년간 심혈을 기울여 집대성한 역사기록이다[17]. 유성룡은 이

책의 서문에서 “내가 지난일의 잘못을 경계하여(懲) 뒤에 환난(患難)이 없도록 조심한다(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징비록』을 저술한 까닭이다.”라고 하였다[17]. 유성룡은 성찰적 관점에서 임진왜란을 기술하여 후대에 기억의 대상으로 삼게 한 것이다.

『징비록』은 간행 직후부터 사료로 인정받아 『선조실록』의 수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징비록』은 『선조수정실록』에 중요한 자료로 인용되었고 조선 후기 역사서인, 『연려실기술』과 『해동역사』 등의 역사서에도 인용되었다. 또한 조선 후기 대일관계의 규범서로서 교린지와 사행록에도 중요한 자료로 취급되었다. 이밖에도 『징비록』은 문인들의 시가의 소재로도 활용되었다. 예컨대 이현면은 『징비록』을 읽고 인조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시를 지었고, 정약용도 『징비록』에 기술된 전투 현장을 지나면서 느낀 소회를 시로 남겼다[18]. 또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 까지 영향을 끼쳤다.

책의 전반부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조정의 무능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 선조의 무능이자 신하와 장수의 무능이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전란 초기의 역사적 패배를 기록물에 의거하여 밝힌 것이다. 조선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에 반전을 가져온 기록은 이순신의 활약이었는데 이 책에서 유성룡은 이순신을 발탁했다는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이때 날씨는 매우 더웠는데 죽은 사람과 말의 시체가 곳곳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 썩은 냄새가 성안에 가득차서 길가는 사람들은 코를 가리고 지나갔다, 관청과 민간의 집들은 모두 없어지고 승례문에서부터 동쪽으로 남산 및 부근 일대의 적군이 거처하던 곳만 조금 남아 있을 뿐이었다[16].

처절한 전쟁의 한가운데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인 이순신은 당대의 전쟁영웅이었고 이 책 후반부에는 이순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기억의 주체인 유성룡은 이순신의 승리는 유성룡의 승리이듯 이순신을 중심에 두고 임진왜란의 승전사를 재구성하였다. 이것은 결국 문자로 기록된 개인의 기억이 집단의 기억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순신이 기록한 『난중일기』의 명량대첩 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19].

16일 맑음. 이른 아침에 망군(望軍)이 와서 보고하기를, “적선이 무려 2백여 척이 명량(鳴梁)을 거쳐 곧장 진치고 있는 곳(양도 부근)으로 향해 온다.”고 했다. 여러 장수들을 불러 거듭 약속한 것을 밝히고 닳을 올리고 바다로 나가니 적선 133척이 우리의 배를 에워쌌다. 지휘선(上船)이 홀로 적선 가운데로 들어가 탄환과 화살을 비바람같이 발사했지만 여러 배들은 바라만 보고서 진격하지 않아 앞일을 헤아릴 수 없었다.

(중략)

내가 뱃전에 서서 직접 안위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억지 부리다 군법에 죽고 싶으냐?”고 하였고, 다시 불러 “안위야, 감히 군법에 죽고 싶으냐? 물러나 도망간들 살 것 같으냐?”라고 했다. 이에 안위(安衛)가 황급히 적과 교전하는 사이를 곧장 들어가니, 적장의 배와 다른 적의 두 척의 배가 안위의 배에 개미처럼 달라붙었고, 안위의 격군 7, 8명은 물에 뛰어들어 헤엄치니 거의 구할 수 없었다. 나는 배를 돌려 곧장 안위의 배 쪽으로 들어갔다. 안위의 배 위에 있는 군사들은 결사적으로 난격하고 내가 탄 배 위의 군관들도 빗발치듯 난사하여 적선 2척을 남김없이 모두 섬멸하였다. 매우 천행한 일이었다. 우리를 에워쌌던 적선 30척도 격파되니 여러 적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다시는 침범해 오지 못했다[19].

과거의 역사는 당대 인간들에 의해 행해진 실제적인 사건이나 행위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건이나 행위에 관한 서술이기도 하다[20].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순신은 명량 해전의 상황을 사건 중심으로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다. 『정비록』의 서사 양상이 유성룡이 보고 들은 이야기와 문서에 의존해서 기술된 반면,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날씨와 전쟁 상황을 현장에서 채록하는 방식으로 기록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유성룡의 경우,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집단기억을 승전사로 기록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경우, 임진왜란에 장수로 참여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기록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참여자이면서 그 사건을 서술하는 기록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서사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임진왜란을 더 사실적이고 주관적으로 묘사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 아스만은 증언자들이 사라지고 전수된 기억이 줄어들수록 문화적으로 형성된 기억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된다고 말하였다[21]. 문화기억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도구인 것이다. 결국 기억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어떻게 기억 되는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현재의 관점에서 재구성된 문화 텍스트의 기억방식은 현재의 역사와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때 텍스트의 공통 전제로 당대의 역사가가 기록한 문헌은 기억방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재의 텍스트와 과거의 텍스트는 공식기억에 균열을 가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역사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된다.

IV. 문화적 전유를 통한 기억의 재구성

기억은 서사와 동일시되며 소설과 영화 속에서 정제되고 공식화되어 있는 역사적 경험의 기록들은 다시 쓰여진다. 이러한 역사 다시쓰기는 “역사에서 의식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망각된 것을 기억해 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14].

김훈의 『칼의 노래』는 임진왜란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지금 이 시간’에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22]. 이로 볼 때, 임진왜란은 2000년 이후에도 여전히 국가 위기 상황에서 호출되는 역사적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김훈은 이순신의 『난중일기』를 현재적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역사와 분리된 이순신의 인간적 면모를 돋보이게 하였다. 이 시대는 전쟁영웅을 필요로 하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일제강점기나 독재시기에 호명되는 민족 지도자를 선망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김훈은 『칼의 노래』에서 탈근대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에게 필요한 인간 이순신의 일상과 내면을 보여주고자 이 소설을 쓴 것이다.

『칼의 노래』는 영웅 이순신이 망각되고 인간 이순신을 기억하게 하는 서사로 가득 차 있다. 기본적으로 이 소설은 이순신의 독백으로 임진왜란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서사 전략을 통해 김훈은 전쟁 영웅으로 알려진 이순신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 이순신으로 그리는데 성

공하였다.

멀리서, 긴 꼬리를 끌며 우는 임금의 통곡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명과 일본이 강화하는 날, 다시 서울 의금부에 끌려가 베어지는 내 머리의 환영이 떠올랐다. 나는 임금의 칼에 죽을 수는 없었다. 나는 나의 자연사로서 적의 칼에 죽기를 원했다[22].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순신의 단호한 성격과 용감자로서 복수심에 불타는 모습이다. 이순신은 원망과 복수의 일념으로 임진왜란에 임한다. 또한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의 최고 권력 수반이 모두 개입한, 무력을 동원한 최초의 분쟁임을 알 수 있다[7]. 임금은 자신의 무능함을 의주에서 울음으로 대신하였고, 정유재란 당시에는 이순신을 비롯하여 의병장 김덕령을 죽이고, 관재우를 초야에 물어버렸다. 임금은 강한 신하를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이순신은 백성에게는 영웅이었으나 임금에게는 두려운 존재였던 것이다. 작가는 ‘자연사’라는 말을 통해 이순신의 죽음이 갖는 성격을 영웅사가 아닌 개인사에 두고 있다. 이는 기존 이순신의 영웅 이미지와는 다른 해석이다.

역사소설은 작가가 역사적 사건에 대해 거시적 관점을 취하느냐 미시적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달리 기술된다. 전자가 G. 루카치의 관점에서 총체성을 중시한다면, 후자는 신역사주의에 따라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일상 담론을 주로 다룬다. 소설가 김훈은 『칼의 노래』를 통해 후자의 관점을 잘 보여주었다. 김훈이 임진왜란을 기억하는 방식은 미시사에 기초한 것으로 이순신의 일상을 독백의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그는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총체성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순신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소설은 인간 이순신의 내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임진왜란 당시 민중의 집단 기억을 찾을 수 없다[23].

김훈의 역사소설에는 영화 『명량』과 달리 백성이 타자화 되고 있다. 백성과 격군은 이순신을 호명하는 과정에서 배경이 될 뿐, 역사의 주체로 그려지지 않는다. 이순신의 오감을 통해 전란의 비극이 극대화되고 있을 뿐, 임진왜란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는 임진왜란의

진모를 알기보다는 이순신 눈에 비친 전쟁의 참상과 권력의 허망함을 알 수 있다. 김훈은 임진왜란의 특수성 대신에 전쟁의 일반성만을 기억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역사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예컨대 김훈의 『칼의 노래』는 유성룡의 성찰적 입장을 보기 힘들뿐만 아니라 임진왜란에 대한 당대 지식인과 백성들의 사유는 배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소설로서 『칼의 노래』는 임진왜란에 대한 정치적 의의나 역사성보다는 소설로서의 작품성이나 흥미를 꾀진하게 보여주었을 뿐이다[8]. 임진왜란이 영웅 이순신의 승전으로만 기억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순신을 일상인으로만 다루는 것도 역사소설의 본질에서는 벗어난다. 따라서 김훈의 『칼의 노래』는 이순신 개인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백성과 격군의 입장에서 전란의 비극성을 다루지 못한 점은 한계라 할 수 있다.

김한민 감독은 영화 <명량>(2014)에서 1592년 임진왜란 이후 이순신이 승전보를 올리던 몇 년의 이야기는 과감히 삭제한다. 이순신의 백의종군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순신이 다시 돌아오게 된 배경 같은 것에는 아예 관심도 없다. 그가 고문을 당했고 다시 복귀해야만 했다고만 설명한 후 모든 것을 명량대첩에 집중한다. 그는 영화 <명량>을 통해 왕이 부재한 공간 속에 이순신이 백성을 구하고, 백성이 이순신을 구한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26]. 이 과정에서 역사적 진실은 영웅 이순신이 아닌 군중과 함께하는 이순신이다. 2000년대 이후, 시대가 구현하는 이순신의 이미지는 전선 12척과 어선의 도움으로 왜선 330척을 격파하는 백성과 함께 하는 지도자의 이미지이다. 이는 이제까지 다뤄왔던 이순신과 백성의 관계를 집단기억의 방식으로 담아낸 것으로 우리는 영화를 통해 이순신의 다른 모습을 알게 된다.

<명량>에서 기억되는 임진왜란의 이미지는 이순신이 탄 배를 백성들이 어선을 이용해 구조하는 장면에서 극대화된다. 이순신은 왜군의 배와 함께 회오리치는 바다에 빠졌으나 백성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것이다. 이는 물론 김한민 감독의 상상력이 만든 전투 장면이다. 그러나 이는 임진왜란의 승전 이유가 이름 모를 다수의 백성들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반증이기

도 하다. 이 장면에서 백성들은 이순신 장군에게 일방적으로 보호받거나 구해지는 수동적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이순신 장군이 위협에 처했을 때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동적인 주체로 구성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기억방식이란 재현이나 답습이 아닌 실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명량>이 보여준 백성의 활약은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방식을 재구성한 것으로, 기억이 정치적이고 사회 맥락적 관계에 따라 구성된다는 것이다[27]. 따라서 영화 <명량>은 현재적 관점에서 임진왜란을 기억하는 방식을 보여준 것으로, 과거에 실제 그러했던 역사적 사실이기보다는 우리의 욕망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허구에 가깝다.

영화 <명량>의 서사가 보여준 것은 역사의 현장에서 밀려나고 역사책 속에서도 밀려나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주변부 집단의 몫을 정당하게 찾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김한민 감독의 <명량>은 역사적 인물인 이순신을 다시 소환하여 명량해전의 승리를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한 것으로, 우리의 집단기억을 이순신이 아닌 민중의 승리로 바꾸었다. 다시 말해 <명량>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위기라는 콘텍스트에 위에 임진왜란을 재해석하여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는 구심점을 보여준 것이다. 역사에서 갈등과 분열은 늘 있어왔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 아래 <명량>이 보여준 미덕은 국가와 민족의 불안한 미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민중의 모습이다.

<명량>의 전투 장면은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명량해전의 모습과 거의 일치한다. 두려움에 빠진 병사들과 이 싸움을 홀로 이끌어가는 이순신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낸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고 이순신의 대장선이 싸우며 버틴 지 몇 시간이 지나야 다른 배들도 전투에 참가해서 대승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이는 루카치가 언급했던 “역사소설에서 중요한 것은 거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활동했던 인간들에 대한 문학적 환기”임을 보여준다[28]. 김한민 감독은 임진왜란 당시 기록되지 않은 백성들의 현장 목소리를 우리가 추체험할 수 있도록 영화 곳곳에 반영하였다.

이회: 아버님은 왜 싸우시는 겁니까?

이순신: 의리다

이회: 저토록 모험치한 임금한테 말입니까?

이순신: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좇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이회: 임금이 아니고 말입니까?

이순신: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지[26].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순신은 아들 이회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왜 싸우는지를 보여준다. 소설 『갈의 노래』가 독백을 통해 서사를 전개하였다면, 영화 <명량>은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통해 서사를 진행하되, 이순신이 전쟁에 임하는 자세는 다르게 보여준다. 즉, 이순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수적인 인물들이 전쟁서사의 중심에 서게 한다. 김한민 감독은 기존의 임진왜란 서사가 이순신의 영웅담론으로 기억되는 것을 부정하고 백성의 서사가 기억의 핵심임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임진왜란 당시에 무인은 조선의 임금에게 충성을 다해야 했다. 그러나 김한민은 이순신을 통해 충의 방향이 임금이 아니라 백성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그런 백성을 향한 충은 의리라는 말로 다시 정의한다. 이순신과 이회의 대화 장면은 백성들과의 연대 속에서 임진왜란의 역사가 새롭게 기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김한민 감독과의 인터뷰에서도 <명량>은 역사적 영웅의 호출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해전 장면은 61분이나 계속됩니다. 긴 시간을 할애하신 것이고, 해상 촬영도 도전적이었습니다. 해전에 관한 고증도 장난 아니고요. 해전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했나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름 없는 격군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이렇게 개고생한 것을 알까?’, ‘모르면 호로자식들이지!’라고 대화하는 장면. 그게 이 영화를 만든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대사가 나왔을 때, 관객들이 ‘아 그래, 우리 선조들이 정말 고생을 했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관객들이 ‘음력 1597년 9월 16일 저 해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한다.’가 첫째 가정이었어요. 그렇게 하려면 당시 해전의 리얼리티를 구축하기 위한 모든 것들, 민초의 모습, 장수, 장졸의 모

습, 배, 그리고 당시 조류의 상황뿐 아니라 리얼리티를 채우기 위해서 마땅히 그럴 것 같은 개인성의 확보가 중요해 지는 것이죠.”[29].

병사들은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을 돋보이게 한 조연이 아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병사들을 설득하여 자발적으로 따르게 한다. <명량>은 전쟁에 자원한 청년이 격군이 되어 이순신의 대장선 밑바닥에서 손에 피가 나도록 노를 젓는 것을 클로즈업한다. 영화는 배 위에서 지휘하는 장군이나 갑판에서 백병전에 나서는 병사뿐만 아니라 배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격군들의 모습까지 사려 깊게 카메라 앵글에 담아낸다. 이순신의 대장배가 ‘충파’와 같은 위험한 전술을 쓸 수 있었던 것은 격군들의 혼연일체 된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상을 담아낸 김한민 감독은 명량해전을 재현하기보다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대중과 소통을 시도하였다. 역사에서 잊혀진 백성들의 언어를 화면에 복원한 것이다. 따라서 <명량>은 민중의 언어로 복원된 임진왜란사이다. 이 과정에서 이순신과 백성은 집단기억의 중심에 서게 된다.

우리는 <명량>을 통해 임진왜란 때 이순신을 도운 전라 좌우수영 사람들의 활약상을 상상할 수 있다. 많은 전라 좌우수영 사람들이 임명직으로 혹은 자발적으로 이순신 막하에 와서 그를 도왔다[24]. 해상의병은 전란 초부터 전라 좌우수영에 자원 종군하여 이순신과 행동을 같이한 집단이 있었는가 하면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창의(倡義)하여 이순신의 지휘를 받거나 혹은 향리인 해안지대에서 독자적인 활동을 편 집단도 있다[25]. 의병 지도층의 대다수는 전라도 연해 지역에 거주하는 무과출신을 포함한 사족들이거나 승려계층들로 임진왜란 승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순신의 아들 이희가 이순신에게 묻는다.

이희: 어찌 때마침 바다에 회오리가 일 것을 예견했습니까?
까?

이순신: 천행이었다.

이희: 천행이라뇨?

이순신: 그 순간에 백성들이 구해 준 것이...

이희: 백성을 두고 천행이라 하십니까? 회오리가 아니고요?

이순신: 니 생각에는 무엇이 더 천행이었겠느냐?[26].

김한민 감독은 다수의 힘없는 민중이 역사의 주체임을 알기에 『난중일기』에 나온 ‘천행(天幸)의 의미를 극대화시킨다. 사실 이 장면은 『난중일기』에는 문자적인 의미에서 짧게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임진왜란 승리의 주체가 백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이순신의 입을 통해 부각시킨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사실은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이다. 김한민 감독의 <명량>은 역사의 주체인 민중들의 경험과 지식이 소멸되지 않도록, 또는 망각되지 않도록 저장해놓은 것이고, 이때 영화는 바로 문화적 기억의 대표로 자리매김 되었다.

2010년대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이순신을 기억하는 방식이 수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화 <명량>은 임진왜란의 기억방식이 백성들의 적극적인 승리의지와 이순신의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확인케 하였다. 또한 소설 『칼의 노래』에서는 영웅성이 망각된 자리에 개인성을 부각시켰다면, 영화 <명량>에서는 영웅성이 사라진 자리에 백성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역사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었다.

V. 나오며

기억은 모두 굴절된 기억이고 구성된 기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억에는 망각이 구성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연구자는 기억과 망각의 변증법인 기억방식을 통해 임진왜란의 서사 양상을 살펴보았다. 명량해전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순신 중심의 기억서사는 임진왜란을 기록한 당대의 문헌에서 알 수 있듯이 20세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변용되었다. 임진왜란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록한 『정비록』에는 그 서사 양상이 유성룡이 보고 들은 이야기와 문서에 의존해서 기술되었다. 책의 초반부에서 후반부에 이르기까지 이순신은 전란을 극복한 영웅으로 그렸다. 이순신의 『난중일기』는 날씨와 전쟁 상황을 현장에서 채록하는 방식으로 서사가 진행되었다.

전쟁 초기부터 숨을 거둘 때까지 기록한 전쟁보고서라 할 수 있다. 유성룡과 달리 이순신은 실제 사건의 참여자이면서 그 사건을 서술하는 기록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기에 주관적일 수 있다. 김훈의 『칼의 노래』는 1인칭 시점으로 이순신의 내면을 그려내어 영웅이 아닌 개인 이순신을 기억하게 하였다. 그러나 역사소설이 갖추어야 할 총체성이 부족한 것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이들 서사들은 임진왜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개인 기억에 의존해서 기술한 것으로 집단의 기억을 형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둘째, 해상의병에 대한 사료 발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 당시 백성과 의병은 전쟁의 주체였다. 그러나 이들의 목소리는 기억의 서사에서 철저히 망각되고 이순신만이 전면에 부각된 것이 20세기까지의 기억 방식이었다. 그러나 명량해전을 다룬 김한민 감독의 <명량>은 비록 역사가 아닌 허구적 장르를 통해 그동안 망각된 격군과 해상의병을 그려냄으로써 기존의 임진왜란 기억방식에 균열을 가하였다. <명량>은 임진왜란 당시 백성의 존재를 전면에 부각시킴으로써 망각된 기억을 복원하였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은 망각되지 않고 현재화된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기억으로 복원해야 한다. 그럴 때에야 역사는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기봉, 역사를 통한 동아시아 공동체 만들기, 푸른역사, 2006.
 [2] E. H. 카, 김택현 옮김, 역사란 무엇인가, 까치, 2015.
 [3] 유시민, 역사의 역사, 돌베개, 2018.
 [4] 윤진현, “이순신과 영웅의 쇄신-KBS 대하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14호, pp.7-39, 2005.
 [5] 신성재, “명량해전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사연구, 제170호, pp.429-458, 2015.
 [6] 노승석, “鳴梁海戰 중 吳益昌의 의병활동에 대한

고찰- 『沙湖集』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52호, pp.67-98, 2012.
 [7] 정두희, 이경순 엮음,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8] 이민웅, “역사소설에 그려진 이순신,” 한국사 시민강좌, 제41집, pp.64-84, 2007.
 [9] 이성혁, “김훈의 ‘역사소설’에 나타난 파시즘 문제에 대한 고찰,” 한민족문화연구, 제46집, pp.365-395, 2014.
 [10] 정건희, “김훈 역사소설의 비역사성,” 관악어문연구, 제36집, pp.197-218, 2011.
 [11] 김기봉, 히스토리야, 쿠오바디스, 서해문집, 2016.
 [12] 한영현, “영웅의 대중적 호출과 역사적 상상력: 영화 <명량>,” 현대영화연구, 제20집, pp.89-110, 2015.
 [13] 김호기, 시대정신과 지식인, 돌베개, 2012.
 [14] 최문규, 고규진, 김영목, 김현진, 박은주, 이해경, 조경식, 기억과 망각, 책세상, 2003.
 [15] 길태숙, “기록의 역사에 집단 경험의 역사로,” 글로벌문화콘텐츠, 제28집, pp.1-23, 2017.
 [16] 유성룡, 이재호 역, 정비록, 역사의아침, 2007.
 [17] 석민영, “『정비록』과 역사·문화 기록의 중요성,” 이순신연구 논총, 제6집, pp.337-362, 2006.
 [18] 장준호, 유성룡의 『정비록』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9] 이순신, 노승석 역, 난중일기, 여해, 2016.
 [20] 공임순, 우리 역사소설은 이론과 논쟁이 필요하다, 책세상, 2009.
 [21] 황보영조, 기억의 정치와 역사, 역락, 2017.
 [22] 김훈, 칼의 노래, 문학동네, 2012.
 [23] 김윤정, “김훈의 역사소설에 나타난 역사 변용의 원리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5집, pp.181-203, 2017.
 [24] 정진술, “이순신을 도운 전라 좌·우수영 사람들,” 이순신연구논총, 제23집, pp.1-48, 2015.
 [25] 조원래, “이충무공과 해상의병,” 이순신연구논총, 제1집, pp.1-8, 2003.
 [26] 김한민, “명량,” 빅스톤픽처스, 2014.

- [27] 태지호, *기억문화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28] 게오르그 루카치, 이영욱 역, *역사소설론*, 거름, 1997.
- [29] 심영섭, “독점 인터뷰/영화 <명량> 연출, 김한민 감독, - 두려움을 용기로 바꾼 해진, 죽음 대면한 장수의 운명 그리고 싶었다,” 월간중앙, 2014(9).

저자 소개

음영철(Yeong-Cheol Eum)

정회원



- 1998년 2월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석사)
- 2011년 2월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글로벌한국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문화 콘텐츠, 교육, 보건

박은미(Eun-Mi Park)

정회원



- 1995년 2월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석사)
- 2004년 2월 : 건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박사)
- 2018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교양대학 시간강사

<관심분야> : 문화 콘텐츠, 교육, 보건